

2011년 도 제3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순경)

과목	형 법	응시번호	성명
----	-----	------	----

1. 다음 사례 중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은 전처인 乙에게 재결합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면서 청산염 2g 정도를 동봉·우송하여 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甲은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으로 을의 등을 폭행하였다.
- ㉢ 甲은 친구인 乙·丙과 흥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흥기를 소지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乙·丙은 건물로부터 약 30 내지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 안에서 흥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다.
- ㉣ 甲은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乙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의 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형의 집행유예
- ② 가석방
-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주한 기간
- ④ 천재지변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기간

3. 다음 중 갑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甲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쓰러진 무단횡단자는 지나가던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 ㉡ 담임교사 甲은 학생들의 유리창 청소시에 교실 안에서 닭을 수 있는 유리창만 닭도록 지시하였으나, 한 학생이 이러한 담임교사의 주의를 무시하고 종례 후 유리창 바깥쪽을 닭으려고 나가다가 발을 헛디뎈 추락하여 크게 다쳤다.
- ㉢ 교사 甲은 징계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의사 甲은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겼는데 그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종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간첩이 무전기를 매몰하는 데 망을 보아준 행위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사행성유기기를 비치하고 고객들이 이를 통해 얻은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 줌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위 사행행위 영업 등에 관한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는 후에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의료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 ④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방조범으로 인정되나, 적어도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는 알아야 한다.

5.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
-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丙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하도록 교사하였으나, 乙이 방화는 하지 않고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② 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丙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丙을 폭행하던 중 丙을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로 처벌된다.
- ③ 甲과 乙이 과도를 들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甲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공모한 대로 丙의 집에 들어가 丙에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甲은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을 경우, 甲은 특수강도죄로 처벌된다.
- ④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하고, 乙은 현장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乙은 공포심을 느껴 도망하고 말았다. 甲은 그 후 丙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그를 때려 상처를 입혔으나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한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 乙은 특수절도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7.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동네 아주머니와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말한 경우
- ㉡ 피고인이 수사경찰의 고문을 받았다고 4인에게 순차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 ㉢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경우
- ㉣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 옷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은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예비, 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바르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1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 없다.
- ②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법률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지 본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④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9. 다음 중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소유자가 집을 떠난 후 그대로 버려둔 채 10년 이상 관리하지 않은 물건
-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어음
- ㉢ 금제품인 대마(大麻)
- ㉣ 평소 행위자가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계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임신중절의 목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킨 후 살해한 경우에는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 ②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③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태이고,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법상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1. 다음은 사기의 죄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라도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분양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을 경우에는,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 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그로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1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와 무관한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 ③ 부작위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④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다음 기술 중 횡령죄(업무상횡령죄 포함)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경우
-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 ③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 하는 방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④ 乙이 甲으로부터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고 어음에 배서 양도받아 이를 다시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는데 지급기일에 부도가 되어 丙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다시 甲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어음회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경우 乙의 죄책

14.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 하여야 한다.
- ②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③ 고의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 ④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5. 판례에 의할 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 ㉠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에 불과한 경우(선박과괴죄)
- ㉡ 선박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매몰 순간 사람이 선박을 떠난 경우(선박매몰죄의 기수범)
- ㉢ 입찰장소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입찰방해죄)
- ㉣ 경찰서 조사계장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기 위하여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 경우(공용서류손상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6.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②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주미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 그 알선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 ③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

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④ 미국 국적의 甲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호텔에서 한국인인 乙, 丙, 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홍콩으로 건너가 홍콩인 戊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 甲이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다.

17. 공무원이자 국립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甲의 부탁을 받고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법률의 규정 및 판례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 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③ 위 두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④ 위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18.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 착오 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19.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포함)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취객이 파출소 내에서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경우
- ㉡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범죄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자수감경의 효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에게도 미친다.
- ② 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 ③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 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